

AI 건강관리로 병원행 줄인다...‘예방 돌봄’ 주목

■광주특별시 광산구 ‘스마트건강관리 플랫폼’

AI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운영...초고령사회 ‘모범 사례’
건강활동가·지역기관 연계...의료·돌봄 비용↓ 삶의 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 통합돌봄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광산구는 수완·우산·송정 등 3개 권역에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적처방은 의료적 치료에 앞서 운동과 식습관, 정서, 사회적 관계 등 생활 전반의 개선을 지원하는 건강관리 방식이

다. 광산구는 질병 발생 이후 치료에 집중하는 기존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지역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해 왔다.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에는 혈압·혈당·스트레스·체성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16종의 첨단 건강 측정 장비가 갖춰져 있다. 측정된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사회적처방을 제공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관리소에서 건강 데이터를 측정한 시민은 3882명이다. 이 가운데 928명은 사회적처방을 통해 건강관리와 사회활동 등에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자 만족도도 높다. 2026년 8월 18일 기준 만족도는 96.3점에 달했다. 광산구는 사회적처방이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도록 생활 속 실천을 돕는 체계로 마련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건강활동가를 양성하고, 사회적처방을 받은 시민에게 건강활동가 2명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운동·정서·영양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등을 지원한다. 사회적처방의 지속적인 실천을 돕는 동시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역할도 확대하는 방식이다.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

다. 호남대와 광주보건대, 남부대, 국립장성순채원, 복지관 등과 협업체에 산립치유와 소모임, 정서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3개 권역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중심으로 건강 데이터 측정·분석부터 사회적처방, 실행 지원, 건강활동가 연계,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을 본격화하면서 예방 중심 건강돌봄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사업 성과가 알려지면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서울·부산·인천·대전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영국 옥스퍼드룩스대학교 등 국내외 연구진이 광산구의 사례를 찾았다.

광산구는 정책 우수성을 인정받아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대상,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특별시 감사위원회도 최근 광산구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의료·돌봄 비용을 줄이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예방형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가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건강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예방 중심 지역돌봄 모델로 자리 잡았다”며 “이를 더욱 고도화해 누구나 100세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광주특별시교육청, 작은학교 영화제 상영작 공모

10월 13일까지 초·중·고 학생 대상 영화파일 등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극장 스크린에서 선보이는 ‘제3회 작은학교 영화제’ 상영작 공모에 나선다. 광주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2월 열리는 제3회 작은학교 영화제를 앞두고 AI 숏폼 광고 ‘다음 주인공은 나야’를 공개하고, 영화제 상영작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주인공은 나야’는 해보초등학교 천창우 교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1분 10초 분량의 숏폼 영상이다. 학생 주도성을 주제로 제작됐으며, 전남광주교육TV와 인스타그램(2026jgssff)을 통해 공개된다. 교육청은 해당 영상을 작은학교 영화제와 작은학교 특성화교육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로 활용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영화제는 12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개막식을 열고, CGV목포 평화광장에서 상영회를 진행한다.

상영작 공모에는 초·중·고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다. 학교 규모에 제한은 없으며, 2025년 3월 이후 수업이나 동아리, 방과후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제작한 5분 이상 25분 이하의 영화가 대상이다. 출품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출품신청서와 영화 파일, 리플릿 제작용 스틸 사진 2장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0월 21일 교육청 누리집과 공문을 통해 발표한다. 작은학교 영화 특성화교육은 소규모학교의 강점을 살린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통해 ‘작지만 강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학생들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재 발굴부터 이야기 구성, 시나리오 작성, 연기, 촬영, 연출, 편집까지 다양한 역할을 경험한다. 올해는 봄에 선정된 ‘영화로 담은 작은 학교’ 24개교의 제작 작품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함께 상영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이리스 바둑·장기대회 20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게임1동 마사회 광주시사 문화공간에서 열린 제2회 동구지회 바둑·장기대회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관계자들이 바둑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광주 다시 ‘한증막’...폭염특보 전역 확대

높은 습도에 체감온도 상승...무더위·열대야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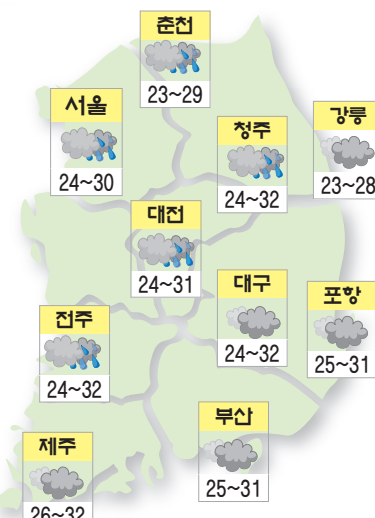
전남광주에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비가 그친 뒤 높은 습도와 지표면의 열기가 맞물리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오르는 ‘습식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구례 산간과 완도 여서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오전부터 전남 곳곳에서는 32도

를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났다. 주요 지점별 낮 최고기온은 무안 해제 32.9도, 광양 읍 32.8도, 나주 다도 32.8도, 무안 운남 32.5도, 광양 32.4도, 조선포·고흥 32.3도, 광주 광산 32.2도, 전남도청 32.0도 등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2~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지역에는 이날 저녁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5~6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이후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기온이 다

시 오르면서 체감 더위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밤에도 더위는 쉽게 식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흑산도·홍도와 무안 북부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낮 동안 달궈진 지면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숙면을 방해하는 등 불편도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수 있지만, 소나기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오늘의 날씨

☀️	예보	05:56	🌙	달출	14:32
☁️	예보	19:14	🌧️	달입	23:58



광주	☁️	24~32
목포	☁️	25~32
여수	☁️	24~31
순천	☁️	24~31
구례	☁️	24~31
광주	☁️	25~32
진남	☁️	25~31
진남	☁️	25~30
진남	☁️	24~31
진남	☁️	25~31

목포	☁️	07:23 / 20:39
여수	☁️	00:46 / 12:48
여수	☁️	01:23 / 15:57
여수	☁️	07:49 / 22:49

사기 피해금 세탁한 60대 여성

만년필 ○·사기 피해금을 자금세탁한 뒤 범죄단체에 전달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전희숙 재판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806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이를 자신의 가상자산거래소 연동 계좌로 옮기고 USDT로 환전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

A씨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면 중 ‘USDT를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 자신의 계좌 등이 탈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 A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8060만원은 ‘노쇼’ 사기 피해금이었다고.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수능 절대평가·서논술형 도입 확정 아니다”

국교위, 전남광주현장토론회서 대입 개편 논의
내년 3월 최종안 공개...김대중 교육감 등 참석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확정된 결론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은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확정된 결론을 갖고 있지 않다”며 “주제가 어려운 만큼 국민 의견을 계속 모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의 세상과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평가 제도, 특히 입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지난 11일 인천에 이어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토론회를 열고 교사·학부모·학생·국민참여위원 등과 미래 대입제도와 평가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 발제와 소그룹 토의로 진행

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래 대입제도와 AI 시대 평가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정답만 고르는 시대는 끝났다. 무엇이 정답인지 질문하고 생각하는 힘과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며 “교육 패러다임을 성직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우선 평가가 바뀌어야 수업이 바뀐다”고 말했다. 김 교교육감은 내년부터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채점 신뢰도와 현장 업무 부담”이라며 AI 시스템을 도입해 채점 투명성을 높이고 ‘전남광주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20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육과정개발평가원’을 신설해 전문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2027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본격 추진하고 AI에 두터운 기반 체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

이다. 토론회제자로 나선 김동진 국교위 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AI대 전환과 인구 절벽 시대에 객관식 문제 풀이에 집중된 교육과 상대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중학교-고등학교-대입의

순차적 적용과 수업-내신평가-수능의 일체화를 제시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중심에 두되 AI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의 걸림돌로 채점 부담을 꼽으며 AI가 채점 초안을 작성하고 교사가 최종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점 시간과 비용, 평가자 간 편차를 줄이는 동시에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 우려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앞으로 국민참여위원회 속의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이어가며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 공개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